십삼불

우레시노의 니시요시다 지구에 있는 13 개의 석상 십삼불은 시코쿠에서 조각되어 배로 근처의 시오타쓰로 운반되었습니다. 이후 쇼와 시대(1926~1989) 초기에 내륙의 산악지대까지 사람의 손으로 운반되었습니다.

'십삼불'은 5 명의 부처(여래,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뜻함), 7 명의 보살, 1 명의 명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부처 중 석가모니(일본에서는 석가여래로 알려짐)만이 역사적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여래, 보살, 명왕은 불교의 신들입니다.

보살은 부처처럼 깨달음을 얻은 존재이지만, 단순히 자기 자신이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명왕은 원래 힌두교의 신으로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호신으로 불교에 받아들여졌습니다. 명왕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부동명왕(산스크리트어로 *Acala*(아시알라))입니다. 엄한 표정, 악귀를 잡기 위한 왼손의 밧줄, 악귀를 멸하기 위한 오른손의 검, 분노와 격정을 불태워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등 뒤에 있는 큰 불꽃이 특징입니다.

곤겐산

곤겐산은 이 지역 토착신의 애칭입니다. 십삼불 뒤편에 있는 동굴에 천 년 이상 살았던 물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지역에 쌀의 풍작을 가져다주는 신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.

동굴 입구에는 절벽이 드리우고 있으며, 그곳에 있는 자연 암석층은 요괴의 무서운 표정을 닮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절벽, 동굴, 그 앞에 있는 곤겐산과 십삼불 조각상은 우레시노의 88 개소 순례길 중 하나이자 규슈 올레 우레시노 코스의 인기 있는 휴식 장소이기도 합니다.